빈곤여성가장의 생활사건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가족응집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거주 18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을 중심으로 -

김유심* · 곽지영**

The Effects of Life-Events Stress, Social Support, and Family Cohesion on Depression of Female Heads in Poverty

- Focused on Women with Children under 18 in Seoul -

Yoo Sim Kim* · Jee Young Kwak**

요약 : 본 연구는 빈곤여성가장의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가족응집력과 사회적 지지가 빈곤여성가장의 우울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내 종합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44개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빈곤여성가장 290명이었다. 조사방법은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기술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ANOVA), 단순상관관계 분석, 요인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 중 55.5%가 우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빈곤여성가장의 생활사건 스트레스 중 경제 스트레스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자녀양육 스트레스, 배우자상실 스트레스, 부모역할수행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빈곤여성가장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검증한 결과 통제변수 중에서 학력이 낮고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하위차원에서 경제 스트레스, 배우자상실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고, 가족응집력과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빈곤여성가장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 빈곤여성가장, 우울, 생활사건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가족응집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not only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tressful life events on depression but also to find out the protectiv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family cohe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depression for female heads in poverty. The data was collected in 44 Community Welfare Centers and Self-Help Promotion Agencies using a self-reporting survey.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I recruited female heads in poverty(the beneficiarie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nd the Near Poor Group). 290 questionnaires were gathered and analysed. In order to examine the data,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factor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tatistical package SPSS/PC 12.0 were used. The

* 연세대학교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관장(Director, Gayang 4 Community Welfare Centers of Yonsei University)
** 한국사이버대학교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Korea Cyber University),
교신저자(E-mail: jyo913@hanmail.net, Tel: 02-708-7835)

major finding was that first, the overall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55.5% of the participants were likely to be depressed and the following kinds of stress from stressful life events, in order from high to low, were: economic stress, children rearing stress, spouse loss stress, parent sex role stress, and social relation stress. Second, in the association between demographic variables and depression, poor health and low level of education were influenced.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relationship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economic stress, spouse loss stress, and social relation stress-and depression is positive, but that those between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and between family cohesion and depression are negative. We discussed suggestions for improving mental health of female heads in poverty in Seoul based on this study results.
Key Words : female heads in poverty, depression, life events stress, social support, family cohesion

Ⅰ. 문제제기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에 이르면 우울증이 모든 연령에서 나타나는 질환 중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등 우울증의 심각함을 경고하고 있다.[1] 우울(depression symptoms)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경험으로 야기된 정신건강 문제 중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며,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울증(depression)에 대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빈곤은 여성들의 우울증에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김유심, 2008). 또한 빈곤층 여성의 우울은 일반적인 취약성 요인과 더불어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생활상의 스트레스까지 더해져서 더욱 심각할 수 있다. 더욱이 결혼의 해체로 인해 여성한부모가 된 빈곤여성가장의 경우는 자녀 양육이라는 부담까지 가중되어 정신건강상 가장 심각한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집단임을 알 수 있고, 이는 기존 연구[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 해체의 주된 원인도 사별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혼으로 그 양태가 변모[3]되고 있어, 확대가족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족내적 자원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망 등 가족외적 자원도 부족한 빈곤여성가장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빈곤여성가장은 우울 발생률이 가장 심각하게 증가될 대상으로 예견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취업률이 낮고 불안정하며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보장 제도가 덜 발달된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그 경향도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석재은, 2004)에서 빈곤여성가장은 심각한

1)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에 이르면 우울증이 모든 연령에서 나타나는 질환 중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울증은 환자 10%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심각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울증이 2020년 '미래 질병 1위'로 급부상한다면 암과 같은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우울증에 의한 사망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메디컬 헤럴드 신문, 2009. 8. 31).

2) 빈곤여성가장은 가족체계의 불균형과 자녀 양육 및 경제적 책임으로 인한 이중적 부담으로 경제적·사회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로 인해 우울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안자, 2005; 김오남, 2004; 장혜경·차보경, 2003; Amato and Patridge, 1987; Burden, 1986; Schwartzberg and Dytell, 1988).

3)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현재 전체가구 대비 한부모 가구 비율은 8.6%이고, 이중 모자가구는 79%, 부자가구는 21%이다. 한부모가족 형성요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현재 유배우가 23.9%, 사별 36.6%, 이혼이 29.1%, 미혼이 10.4%로 구성되었다. 2000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혼은 2000년 21.9%에서 2005년 29.1%로 증가하였고, 사별의 경우는 2000년 44.7%에서 2005년 36.6%로 감소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8).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절대적 빈곤층인 극빈층에 내몰린 상황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건강의 악화는 엄마와 자녀의 동반자살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올 정도로 자녀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빈곤여성가장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 가장이 독립적인 가장이자 양육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은 고등학생 자녀 학비지원, 만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1인당 월 5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1인당 최고 2000만원 복지자금 대여,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 공급 등(여성가족부, 2008)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무척 부족하다.

기존의 빈곤여성가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여성가장의 실태, 경제적 빈곤, 사회적 지원과 관련된 연구(김오남, 1998; 김영희, 1998; 신화용・조병은, 1996; 유조안, 2000; 엄미선・전동일, 2006; 조성연, 2003; 최연실, 2005)와 아버지 부재로 인한 자녀들의 적응문제, 비행행동과 관련된 연구(김보경, 2001; 박용권・박병금, 1999; 오승환, 2001; 지은선, 2002; Grych and Fincham, 1992)가 대부분으로 빈곤여성가장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거주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빈곤여성가장(이하 빈곤여성가장)의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빈곤여성가장의 우울과 관련 있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내용과 우울을 줄일 수 있는 영향요인으로서 가족응집력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확인하여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원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가족스트레스 모델

가족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Double ABC-X 모델'에 의하면, 비슷한 수준의 생활사건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이나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 전체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개인이나 가족의 적응결과가 달라진다고 본다(McCubbin and Patterson, 1983). 이러한 가족 스트레스 연구는 어떤 가족이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어떤 자원으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대응행동을 할 것인가를 분석함으로써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McCubbin, 1979).

McCubbin은 가족체계의 많은 변화를 유발하는 사건을 생활사건이라 하였으며, 가족체계 내의 변화를 야기하는 가족단위의 생활사건 또는 충격을 가족의 누적된 스트레스라 하였고 신체 심리적 스트레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McCubbin and Patterson, 1983). 그리고 McCubbin et al.(1996)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자원을 첫째로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자아존중감, 지식과 기술, 둘째로 가족체계 자원, 즉 응집력, 의사소통, 적응과 같이 가족의 내부적인 것, 셋째로 가족 외부에서 사람이나 기관의 도움을 필요할 때 끌어올 수 있는 사회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Double ABC-X모델'에 근거해 빈곤여성가장의 정신건강 영향요인을 설명해 보면, 그들이 경험하는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심각함도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를 개인이 소유하는 스트레스 대처 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빈곤여성가장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그들이 경험하는 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응집력과 사회적 지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즉, 빈곤여성가장의 우울 정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효율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가족체계 자원으로서의 가족응집력과 사회적 지지를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여 빈곤여성가장의 우울에 대한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2. 빈곤여성가장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빈곤여성가장과 우울

우울(depression symptoms)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경험으로 야기된 정신건강 문제 중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며,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울증(depression)에 대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빈곤은 여성들의 우울증에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빈곤 상황의 성인은 비빈곤 성인보다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두 배인 것으로 알려졌으며(Bruce et al., 1991), 저소득층 어머니들의 우울증 발병 비율은 일반 여성들의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Bassuk et al., 1998).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혐오적이거나 심각한 생활 사건의 경험은 우울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Brown and Moran, 1997). 비자발적인 직업 상실, 이혼, 배우자의 사망과 같은 부정적인 생활사건들은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 강도 높은 대인 갈등, 심한 사회적 고립과 같은 상황으로 연결되어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혼한 여성한부모의 우울수준은 스트레스를 통해 조정되는데 이혼 후 경험하는 스트레스사건과 우울 감정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지만, 이혼한 여성한부모의 우울은 일반가족의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DeGarmo and Kiston, 1996). 또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 위축과 배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건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기도 한다.

빈곤여성가장의 경제적, 사회적 스트레스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높은 우울을 유발시키며(유조안, 2000; Burden, 1986; Schwartzberg and Dytell, 1988),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수준의 하락에 따른 문제는 우울을 높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신화용·조병은, 1996). Paykel(1969)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과 우울, 자살시도의 관계를 제시하였고, 특히 의미 있는 대상상실(죽음, 이별)이 우울의 유발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기존 연구를 통해 빈곤여성가장의 높은 수준의 생활사건 스트레스 경험은 정신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빈곤여성가장의 우울이나 자살은 본인뿐 아니라 그들이 양육하는 자녀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빈곤여성가장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빈곤여성가장뿐 아니라 빈곤여성가장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빈곤여성가장과 생활사건 스트레스

생활사건 스트레스(life events stress)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모든 사건으로, 개인이 가지는 자원을 초과하거나 개인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 간의 특정한 관계에 대해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고유의 경험을 의미한다(Lazarus and Folkman, 1984). 그런데 빈곤층 여성들은 특히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착취 상황에서 일반 인구집단보다 더 자주 위협적이고 통제불가능한 생활사건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own et al., 1975; Dohrenwend, 1973: Ennis et al., 2000).

배우자의 실직 혹은 질병 등의 이유로 가족의 실질적 가장이 된 경우와 사별을 통해 가장이 된 경우, 이혼이나 배우자 가출 혹은 혼외 출산을 통해 여성가장이 된 경우 가족적 특성이나 여성가장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상당히 다를 수 있으며(김미숙 외, 2000), 여성가장 가족을 형성한 이후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나 일상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전략 등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공선영, 2000).

특히 빈곤여성가장 가족의 문제점을 연구한 결과(오승환, 2001; 엄미선·전동일, 2006; 유조안, 2000)를 보면 빈곤여성가장 가족들은 대체로 경제적 문제, 정서적 문제, 자녀문제 등을 심각하게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지만, 빈곤여성가장 가족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여성가장이 생활하면서 적응이 요구되는 생활의 변화를 의미하는 부정적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을 내용별로 경제적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자녀양육 스트레스, 배우자상실 스트레스, 부모역할수행 스트레스로 정의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 빈곤여성가장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빈곤여성가장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Double ABC-X모델'을 적용해서 그들이 경험하는 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응집력과 사회적 지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빈곤여성가장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첫째,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 재정적 스트레스와 가정생활 스트레스는 우울에 정적 영향을 주며(김오남, 2005; Pett et al., 1994), 둘째,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빈곤여성의 우울을 더 높게 나타나게 하는 요소로 드러났다(엄미선·전동일, 2006; Fine et al., 1986). 셋째, 가족역할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역할 스트레스가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드러났다(Dytell and Schwartzberg, 1986). 넷째, 빈곤여성가장은 경제, 가족, 개인의 건강문제가 발생한 경우 더 높은 우울, 불안을 느끼며 더 많은 정신적 증상을 보인다(Compas and Williams, 1990).

빈곤여성가장의 우울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가족응집력은 가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애정적인 유대와 한 개인이 가족체계 내에서 경험하는 개인적인 자율성의 정도를 의미한다(Olson et al., 1983). Marris(1981)는 청소년을 연구한 결과 부모의 친밀하지 못함과 지원 부족이 우울과 자살 행위에 정적으로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Blazer and Burchett(1991)의 연구에서는 가족응집력이 낮을수록 노년기에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김홍기 외(1991)의 연구에서도 가족응집력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미선(1995)은 가족응집력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임을 밝혀냈다. 그러므로 가족응집력은 빈곤여성가장의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고려될 수 있으며, 적절한 가족응집력을 가진 빈곤여성가장은 생활사건 스트레스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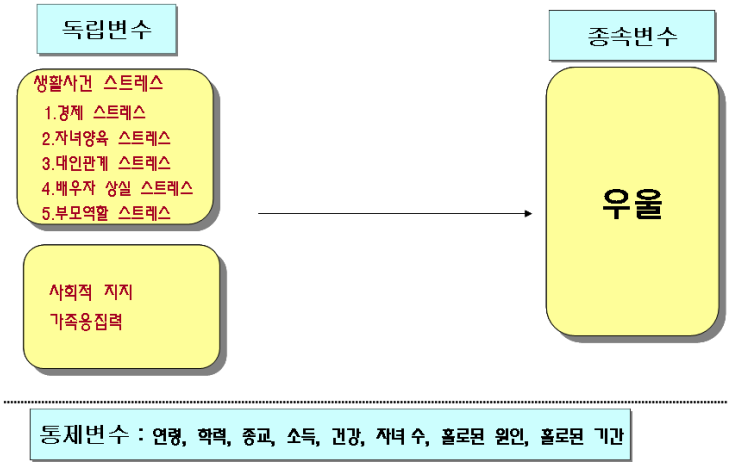
빈곤여성가장의 우울에 대한 마지막 영향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는 안정적인 대인관계의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Thoits, 1982). 빈곤여성가장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스트레스인지가 낮고 모자녀관계나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오남, 2004; 김영희, 1998; 박용권 · 박병금, 1999; 유조안, 2000; 조성연, 2003). 즉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데 유능하고 타인의 보살핌 속에 있다고 느끼는 반면에, 부정적인 자기 인지와 함께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우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김유심, 2008). 그러므로 적절한 사회적 지지는 위기에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Cobb, 1976; George et al., 2000)을 하며,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개인의 심리적 상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재역할(Caplan, 1982)을 함으로써 빈곤여성가장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연구들은 빈곤여성가장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요소나 부정적인 요소를 밝히는 연구들이 주로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족스트레스 모델에 근거해서 빈곤여성가장의 정신건강의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실제적인 사회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빈곤여성가장의 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응집력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빈곤여성의 생활사



〈그림 1〉 연구모형

건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가족응집력을 종속변수인 우울에 대한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 학력, 종교, 소득, 건강, 자녀 수, 홀로된 원인, 홀로된 기간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만 18세 이하의 막내자녀와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여성가장[4]이다. 설문조사는 비확률표본추출방법의 임의표집방법에 따라 서울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38개 기관과 자활후견기관 6개 기관을 선정[5]하였고 빈곤여성가장의 자기보고식 조사 방식을 통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빈곤여성가장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및 설문조사 방식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을 수정 보완한 후 실시한 본 조사는 2007년 4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조사대상자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90개의 응답 완료된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조사도구

1) 우울(Depression)

본 연구에서는 우울의 유형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eck(1967)이 개발한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이민규 외(1995)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하고 번안한 한국판 Beck 우울증 척도(K-BD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형 척도로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을 포함하는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마다 0점에서 3점으로 채점되며,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로 나타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이었으며(Beck, 1967),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2) 생활사건 스트레스(Life Events Stress)

빈곤여성가장이 경험하는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종류와 내용이 그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심층면접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McCubbin(1981)의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척도와 빈곤여성가장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발견된 배우자상실에 대한 스트레스와 남편의 부재로 인한 부모역할수행 스트레스 요인을 추가하여 22문항으로 생활사건 스트레스 척도를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9이었다. 변수의 값은 '극도로 괴롭다'의 4점에서 '전혀 괴롭지 않다'의 1점까지 리커트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요인분석은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과 사각회전(direct oblimin)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경제 스트레스(5문항), 자녀양육 스트레스(4문항), 대인관계 스트레스(4문항), 배우자상실 스트레스(3문항), 부모역할수행 스트레스(6문항) 등 5

4)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가정과 모·부자복지법 대상 가정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여성가장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한부모로 정의하였다. 자녀의 나이에 따른 여성가장이 경험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의 영역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가장으로 한정하였다.

5)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중 연구 목적에 동의를 하고 조사를 위한 방문을 승낙한 기관으로 한정하였다.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의 내용은 Holloway and Machida (1991)의 Social Support Scale, Klebanov et al.(1994)이 사용한 Social Support를 참고하여 김영희(1998)가 빈곤층 여성한부모를 대상으로 보완 수정하여 사용한 10문항을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10개 문항은 도구적 지원, 정보적 지원, 정서적 지원에 관한 것이다. 각 문항은 3점 척도로 '거의 도움받지 못한다'(1점), '약간 도움받는다'(2점), '많이 도움받는다'(3점)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이었다.

4) 가족응집력

가족응집력 측정도구는 Olson et al.(1985)이 개발한 FACESⅢ(Family Adaptability & Cohesion Evaluation Scales Ⅲ) 중 10개 문항의 가족응집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변수의 값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0이었다.

5) 통제변수

빈곤여성가장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인 연령, 학력, 종교, 소득, 건강, 자녀 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존연구를 통하여 빈곤여성가장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난 여성가장의 홀로된 원인, 홀로된 기간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Packag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빈곤여성가장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우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test)을 사용하였으며,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총문항을 상호 관련성을 기준으로 하위차원으로 분류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빈곤여성가장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서울시 빈곤여성가장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나 있으며,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41~50세(53.9%)가 가장 많고, 31~40세(36.8%), 51~60세(7.1%)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발달적 측면에서 중년기에 속하는 30대와 40대가 90.7%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자의 조건을 만 18세 이하의 막내자녀를 둔 여성가장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학력은 고졸이 6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졸 16.9%, 중졸 13.8%로 나타나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가장도 이혼과 사별로 인해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종교는 개신교(42.8%), 종교 없음(25.5%), 불교(14.1%), 천주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
연령 (N=290)	25~30세	7	2.3
	31~40세	114	36.8
	41~50세	167	53.9
	51~60세	22	7.1
학력 (N=290)	무학	1	0.3
	초졸	19	6.6
	중졸	40	13.8
	고졸	174	60.0
	대졸	49	16.9
종교 (N=290)	개신교	124	42.8
	천주교	40	13.8
	불교	41	14.1
	기타	10	3.4
	종교 없음	74	25.5
월평균 수입 (N=290)	50만원 이하	44	15.2
	51만~70만원	100	34.5
	71만~100만원	111	38.3
	101만~150만원	34	11.7
	무응답	1	0.3
자녀 수 (N=290)	1	91	31.4
	2	152	52.4
	3명 이상	47	16.2
건강상태 (N=290)	건강한 편이다	73	25.1
	보통이다	106	36.6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111	38.3

교(13.8%) 순이다. 월평균 수입은 71만~100만원(38.3%), 51만~70만원(34.5%), 50만원 이하(15.2%), 101만~150만원(11.7%)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88%가 월 100만원 이하의 수입으로 열악한 경제적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 수는 1명(31.4%), 2명(52.4%), 3명 이상(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인지하는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111명(38.3%), '보통이다' 106명(36.6%), '건강한 편이다' 73명(25.1%)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83명(25.1%)만이 자신을 건강하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인 빈곤여성가장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가 홀로된 원인은 사별(25.5%), 이혼(74.5%)으로 나타났다. 사별의 원인은 질병(50.7%), 교통사고(23.9%), 원인불명(8.5%), 산업재해(7.0%), 자살(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의 원인은 경제적 문제(28.6%), 정신적·육체적 폭력(24.8%), 배우자의 외도(22.9%), 성격 차이(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의 경제적 문제보다 배우자의 외도와 폭력이 이혼의 원인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혼이나 사별로 홀로된 기간은 5년 미만(54.5%), 5~10년(34.8%), 11~15년(8.3%), 15년 이상(2.4%)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
홀로된 원인 (N=290)	사별	74	25.5
	이혼	216	74.5
사별원인 (N=71)	질병	36	50.7
	교통사고	17	23.9
	산업재해	5	7.0
	자살	4	5.6
	원인불명	6	8.5
	기타	3	4.2
이혼원인 (N=210)	배우자의 외도	48	22.9
	정서적, 육체적 폭력	52	24.8
	경제적 문제	60	28.6
	성격차이	32	15.2
	시집과의 불화	4	1.9
	도박	3	1.4
	기타	11	5.2
홀로된 기간 (N=290)	5년 미만	158	54.5
	5~10년	101	34.8
	11~15년	24	8.3
	15년 이상	7	2.4

2. 생활사건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가족응집력, 우울 수준의 기술분석

조사대상자의 생활사건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가족응집력, 우울수준의 전체척도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생활사건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가족응집력의 기술분석

(N=290)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생활사건 스트레스 전체	2.65	.46	1.25	3.91
경제 스트레스	2.91	.59	1.00	4.00
자녀양육 스트레스	2.77	.56	1.00	4.00
대인관계 스트레스	2.45	.53	1.00	4.00
배우자상실 스트레스	2.59	.71	1.00	4.00
부모역할수행 스트레스	2.50	.61	1.00	4.00
사회적 지지	1.64	.44	1.00	3.00
가족응집력	3.43	.79	1.00	5.00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2.65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생활사건 스트레스 중 경제 스트레스의 평균이 2.91로 5가지 하위차원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양육 스트레스(2.77), 배우자상실 스트레스(2.59), 부모역할수행 스트레스(2.50), 대인관계 스트레스(2.4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여성가장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 중 경제적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빈곤여성가장들이 현재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여성가장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평균점수는 1.64점으로 나타났고, 가족응집력의 평균점수는 3.43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우울 경향을 구분해서 살펴보기 위해 한국판 Beck 우울척도(K-BDI)의 STEN점수 규준표[6]를 활용하였다. STEN 점수 규준표에서는 8점이 절단점으로 사용될 수 있고, 여자는 17~20점을 우울 경향이 있는 사람, 21~24점을 우울증, 25점 이상을 심한 우울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4〉에서 STEN 점수를 이용한 기준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자의 우울 경향을 분류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우울 경향은 비우울(44.5%), 우울 경향(16.9%), 우울증(11.0%), 심한 우울증(27.6%)으로 나타났다. 우울 경향이 있는 사람이 55.5%로 조사대상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우울 경향 분류

우울 구분	발생빈도(명)	발생률(%)
비우울(0~16점)	129	44.5
우울 경향(17~20점)	49	16.9
우울증(21~24점)	32	11.0
심한 우울증(25점 이상)	80	27.6

6) 한국판 Beck 우울척도(K-BDI)는 우울증의 진단이나 연구에서 우울증 피험자의 선발도구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용도로 이 척도를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이 절단점(cut-off score)이다. Beck(1967)은 BDI 총점수 0~9점을 비우울, 10~15점을 경한 우울증, 16~23점을 중등도 우울증, 24~63점을 심한 우울증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민규 외(1995)는 외국의 우울증 분류 기준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정상인이 우울증으로 분류되는 긍정 오류(false positive)의 가능성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민규 외(1995)는 우울점수가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각각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평균점수에서 +1.5 SD 높은 T점수 65에 해당되는 점수를 절단점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이민규 외(1995)는 우울증의 심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판 Beck 우울척도의 점수범위를 1점에서 10점까지 10등급으로 나누어 우울증의 심각도를 알아보도록 STEN점수를 산출하였다. STEN점수는 Standard Ten의 약자로서 평균이 5.5이고 표준편차가 2인 표준점수를 말한다. 따라서 T점수 65를 기준으로 할 때 남자는 23점, 여자는 24점, 전체적으로는 24점이 절단점으로 제시된다(이민규 외, 1995).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집단 간 우울에 대한 영향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학력, 월평균수입, 여성가장의 건강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우울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우울 평균은 24.10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우울 평균 17.7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한부모의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학력이 낮을수록 우울이 더 높다는 김오남(200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월평균수입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50만원 이하인 경우의 우울의 평균은 22.90으로 71만원 이상인 경우의 우울평균 16.70보다 높게 나타났다. 건강과 관련한 차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건강하다'고 응답한 한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영향 정도

특성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값	F값	Sig
연령 (n=290)	25~30세	7	23.285	12.051		.626	.599
	31~40세	105	18.390	11.050			
	41~50세	156	19.064	9.708			
	51~56세	22	17.590	10.961			
학력 (n=283)	초등학교 졸	20	24.100 a	8.801		2.716	.045*
	중학교 졸	40	20.375 ab	11.639			
	고등학교 졸	174	17.729 b	9.976			
	대학교 졸	49	18.551 ab	10.686			
종교 (n=289)	종교 있음	215	18.172	9.905	3.424		.065
	종교 없음	74	20.743	11.412			
월평균수입 (n=289)	50만원 이하	44	22.909 a	11.553	4.308		.005**
	51만~70만원	100	18.720 ab	9.452			
	71만~100만원	111	16.702 b	10.152			
	101만~150만원	34	20.588 ab	10.497			
홀로된 원인 (n=290)	사별	74	17.797	9.396	.953		.330
	이혼	216	19.157	10.643			
홀로된 기간 (n=290)	5년 미만	158	19.354	10.644		.355	.786
	5~10년	101	18.316	10.148			
	11~15년	24	17.541	9.938			
	15년 이상	7	18.000	8.465			
모 건강 (n=290)	건강한 편임	73	14.068 a	10.095		17.001	.000***
	보통임	106	18.122 b	9.266			
	건강하지 않은 편임	111	22.585 c	10.125			
자녀 수 (n=290)	1명	91	19.758	11.182		.561	.561
	2명	152	18.467	10.403			
	3명 이상	47	18.085	8.316			

* p<.05, ** p<.01, *** p<.001
a, b, c: 서로 다른 문자 간에는 Scheffe검증에서 집단 차이가 있음. ab: 차이가 없음.

부모의 우울 평균은 14.06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여성가장의 우울 평균 22.58보다 낮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조사대상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4.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수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단순상관관계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는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개인특성과 관련된 변수가 포함되어 있고, 독립변수인 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응집력, 사회적 지지와 종속변수인 우울이 포함되었다. 종속변수인 우울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경제 스트레스(r=.480), 대인관계 스트레스(r=.352), 배우자상실 스트레스(r=.430), 부모역할수행 스트레스(r=.460), 자녀관계 스트레스(r=.42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족응집력(r=-.279), 사회적 지지(r=-.327)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r=.596으로 대부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주요 변수들을 회귀분석에 투입하여 분석하는 데 있어 설명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6〉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하위차원과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연령	1															
2. 학력	-.261*	1														
3. 종교	.189**	-.030	1													
4. 월평균수입	.091	-.123*	.020	1												
5. 건강	-.027	.173**	-.001	-.166**	1											
6. 자녀 수	-.032	.016	-.108	.182**	-.150*	1										
7. 홀로된 원인	-.440**	.034	-.108	.072	-.088	-.022	1									
8. 홀로된 기간	.314**	-.275**	.167**	.128*	-.085	.015	-.095	1								
9. 경제스트레스	-.029	-020	-.053	.161	-.294**	.068	.097	-.059	1							
10. 대인관계 스트레스	.020	-.050	-.022	.035	-.165**	.150*	-.005	-.009	.398**	1						
11. 배우자상실 스트레스	-.008	-.066	.052	-.037	-.144*	-.010	-.115	-.041	.471**	.299**	1					
12. 부모역할 수행 스트레스	.016	-.075	.019	.038	-.265**	.095	.000	-.016	.596**	.477**	.546**	1				
13. 자녀양육 스트레스	-.060	-.071	-031	.019	-.254**	.042	.038	-.003	.596**	.400**	.473**	.556**	1			
14. 가족응집력	-.089	.021	.101	-099	.243**	.079	-.011	-.058	-.226**	-.018	-.142*	-.194**	-.201**	1		
15. 사회적 지지	-.049	.048	.040	-.083	.036	-.050	.000	.050	-.184**	-.103	-.193**	-.155*	-.159**	.234**	1	
16. 우울	-.045	-.152*	-.103	.115	-313**	.062	.003	-.059	.480**	.352**	.430**	.460**	.421**	-.279**	-.327**	1

* p<.05, ** p<.01

〈표 7〉 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응집력,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Sig.	B	β	Sig.	B	β	Sig.
통제변인	(상수)	33.420		.000	.066		.991	17.500		.008
	연령	-.134	-.085	.218	-.116	-.073	.219	-.150	-.094	.102
	학력[1]	-3.688	-.145	.018*	-3.121	-.123	.021*	-3.364	-.131	.010*
	종교[2]	-2.003	-.085	.147	-2.107	-.089	.079	-1.475	-.063	.203
	월평균 수입[3]	1.688	.081	.171	1.406	.068	.192	1.089	.052	.293
	건강[4]	-5.975	-.279	.000***	-2.948	-.138	.010*	-2.539	-.119	.025*
	자녀 수[5]	.004	.000	.998	-.485	-.022	.671	-.418	-.019	.706
	홀로된 원인[6]	-.079	-.080	.213	-.057	-.058	.307	-.063	-.064	.241
	홀로된 기간	-.025	-.109	.078	-.015	-.065	.224	-.014	-.062	.227
독립변인	경제 스트레스				.617	.178	.011*	.547	.157	.019*
	자녀양육 스트레스				.364	.080	.223	.251	.055	.382
	대인관계 스트레스				.541	.110	.056	.623	.127	.023*
	배우자상실 스트레스				.850	.176	.005**	.696	.144	.018*
	부모역할수행 스트레스				.330	.117	.097	.288	.103	.131
	가족응집력							-.255	-.196	.000***
	사회적 지지							-.262	-.112	.031*
R^2			.135			.370			.427	
Adjusted R^2			.110			.340			.395	
F(Sig.)			5.290***			12.041***			13.087***	
R^2 Change						.235			.057	
Dubin-Watson			1.642			1.740			1.840	
Tolerance(VIF)		.678-.933(1.475 - 1.072)			.479-.924(2.088 - 1.083)			.476-.902(2.102 - 1.108)		

* p<.05, ** p<.01, *** p<.001

주: 통제변수 중 명목변수인 학력, 종교, 월평균수입, 건강, 홀로된 원인, 자녀 수는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하였음.
1) 학력: 고졸 이상=1, 중졸 이하=0, 2) 종교: 종교 있음=1, 종교 없음=0, 3) 월평균수입: 100만원 이하=1, 100만원 초과=0, 4) 건강: 건강함=1, 건강하지 않음=0, 5) 자녀 수: 1명=1, 2명 이상=0, 6) 홀로된 원인: 사별=1, 이혼=0

5. 빈곤여성가장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검증

빈곤여성가장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장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연령, 학력, 종교, 월평균소득, 건강, 자녀 수, 홀로된 원인, 홀로된 기간 등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 중 학력, 종교, 월평균수입, 건강, 자녀 수, 홀로된 원인은 더미변수(dummy variable)화하여 처리하였다. 변수 간 다중공선성[7]을 진단하기 위하여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와 공차한계(tolerance)를 살펴보았다.

모델 1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여성가장의 개인적 특성으로 구성된 통제변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모델 1의 설명력은 11.0%이고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7)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의 값이 VIF값은 모두 3 이하였고, 공차한계는 모두 .3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Durbin-watson 테스트를 실시하여 잔차의 독립성에 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D통계량이 0에 가깝거나 4에 가까우면 상관관계가 있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과 2 사이로 나타나 잔차의 자기상관관계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수 중 건강과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학력이 낮은 경우에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모델 2는 통제변수에 독립변수인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하위차원인 경제 스트레스, 자녀양육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배우자상실 스트레스, 부모역할수행 스트레스를 추가 투입하여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하위차원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모델 2의 설명력은 34.0%이며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델 설명력의 경우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델 1보다 독립변수인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하위차원을 함께 투입한 모델 2에서 설명력이 크게 증가(R^2 Change=.235)하였고, 이 변화는 F값의 변화량이 Sig.=.000으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델 2에서는 통제변수 중에서 학력, 건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학력이 낮고,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하위차원 중에서 경제 스트레스와 배우자상실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자녀양육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부모역할수행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층 여성한부모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울과 관련된 영향은 경제적 스트레스와 배우자상실로 인한 상실에서 오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로, 빈곤여성가장의 경제적 문제와 배우자상실로 인한 심리적 위기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모델 3은 모델 2에 가족응집력과 사회적 지지를 추가 투입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모델 3의 설명력은 39.5%이며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델설명력은 모델 2보다 가족응집력, 사회적 지지를 투입한 모델 3에서 설명력이 증가(R^2 Change=.057)하였고, 이 변화는 F값의 변화량이 Sig.=.000으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델 3에서는 통제변수 중에서 학력, 건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학력이 낮고,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하위차원 중에서 경제 스트레스와 배우자상실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가족응집력,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즉 경제 스트레스, 배우자상실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응집력과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응집력과 사회적 지지가 빈곤여성가장의 우울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건강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빈곤여성가장에게 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응집력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실천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빈곤여성가장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고, 우울이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빈곤여성가장의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 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응집력과 사회적 지지가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생애

발달적 측면에서 중년기에 속하는 30대와 40대가 90.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학력은 고졸이 6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수입은 조사대상자의 88%가 월 100만원 이하의 수입으로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83명(25.1%)만이 자신을 건강하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적 특성 중 홀로된 원인은 사별(25.5%), 이혼(74.5%)으로 나타났고, 사별의 원인은 질병 36명(50.7%), 교통사고 17명(23.9%)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의 원인은 경제적 문제 63명(20.3%), 정신적·육체적 폭력 55명(17.7%), 배우자의 외도가 50명(16.1%)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이나 사별로 홀로된 기간은 10년 미만이 89.3%로 나타났다.

둘째,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2.65로 나타났고, 생활사건 스트레스 중 경제 스트레스의 평균이 2.91로 5가지 하위차원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양육 스트레스(2.77), 배우자상실 스트레스(2.59), 부모역할수행 스트레스(2.50), 대인관계 스트레스(2.4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STEN 점수를 기준해서 조사대상자의 우울 경향을 분류한 결과, 비우울(44.5%), 우울 경향(16.9%), 우울증(11.0%), 심한 우울증(27.6%)으로 나타나, 우울 경향이 있는 사람이 55.5%로 조사대상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학력, 월평균수입, 여성가장의 건강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과적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여성한부모의 개인적 특성으로 구성된 통제변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학력이 낮은 경우에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통제변수에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하위차원 변수들을 투입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력이 낮고,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경제 스트레스와 배우자상실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통제변수에 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응집력과 사회적 지지를 추가 투입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력이 낮고,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우울이 높게 나타났고, 경제 스트레스, 배우자상실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응집력과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실천적 함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여성가장의 우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경제적 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빈곤여성가장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빈곤여성가장의 노동특성과도 관련된다. 빈곤여성가장의 경우 어머니와 노동자라는 이중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안에서 노동자로서의 역할도, 가족 내에서의 양육자의 역할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가족의 해체로 여성가장이 된 경우, 경력단절로 노동시장 내에서 요구하는 정규직으로서의 일자리를 가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양육과 노동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할 수 없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인 비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비정규직 일자리는 실업 위기에 가장 취약하며, 실업 후에도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에서 배제

되어 빈곤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빈곤여성가장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빈곤여성가장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빈곤여성가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재교육과 함께 여성가장이 일하는 동안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보육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빈곤여성의 취업 재교육 시 적절한 교육비를 지급하고, 그 기간에 아동을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면 빈곤여성가장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빈곤여성가장이 노동시장 안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의 확대가 장기적인 정책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의 확대가 빠른 시일 안에 확보되기 어렵다면, 비정규직의 위치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빈곤여성가장의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보이는 사회적 지지와 가족응집력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와 가족응집력은 빈곤여성가장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우울을 완화할 수 있는 영향요인을 확대함으로써 빈곤여성가장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빈곤여성가장은 이혼이나 사별로 여성가장이 되었고, 형제자매, 친척, 이웃 등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외부지원체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회적 자원에 의지하는 것이 하니라 정부에서 이들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지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빈곤여성가장의 배우자 상실 스트레스와 자녀들이 가진 아버지의 역할 모델 부재를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빈곤여성가장 가족의 가족응집력을 높이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표본은 임의표집방법에 의해 선정되었고, 서울지역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빈곤여성가장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빈곤층 여성가장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빈곤여성가장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만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그 외에 외생변수에 대한 통제를 통한 순수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빈곤여성가장에 대한 거주 도시 규모별-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빈곤여성가장이 된 원인, 즉 사별과 이혼에 따라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받는 영역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홀로된 원인에 따른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영역을 세분화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공선영, 2000, "모자가족의 경험과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미숙 · 박민정 · 이상헌 · 홍석표 · 조병은 · 원영희, 2000,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보경, 2001, "이혼가정의 학교-가정관계, 아동의 성취동기 및 학교생활적응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안자, 2005, "가족레질리언스가 한부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영희, 1998,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 사회적 지원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7(2): 11~22.

김오남, 1998, "편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04, "한부모 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 85~118.

_____, 2005,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 가족적,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3(1).

김유심, 2008, "빈곤층 여성한부모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대처자원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홍기 · 장선향 · 이선미 · 정의식, 1991, "우울환자에서 가족기능도지수와 가족적응력, 결속력 평가 척도에 대한 연구", 「가정의학회지」, 12(7):36~46.

메디컬 헤럴드 신문, 2009, "20~30대 사망 1위 자살", 2009. 8. 31.

박용권 · 박병금, 1999, "모자가족의 가족체계유형과 사회적 지지가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모자가족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8호.

석재은, 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3(1): 76~105.

신화용 · 조병은, 1996, "편부모가 인지한 가족환경과 사회심리적 적응, 늘어나는 편부모가정", 「'96 가정복지세미나」, 5~31.

엄미선 · 전동일, 2006,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과 사회적 지지", 「사회복지리뷰」, 11: 75~108.

여성가족부, 2008, 「200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오승환, 2001,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가족기능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연구: 양친가족, 편부가족, 편모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2(1): 77~107.

유조안, 2000, "저소득층 편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미선, 1995, "취업주부가 지각한 가족응집력 · 적응력 및 가사노동수행방안", 「대한가정학회지」, 33(3): 71~83.

이민규 · 이영호 · 박세현 · 손창호 · 정영조 · 홍성국 · 이병관 · 장필립 · 윤애리, 1995, "한국판 Beck 우울척도의 표준화 연구 Ⅰ: 신뢰도 및 요인분석", 「정신병리학」, 4(1).

장혜경 · 차보경, 2003, "갱년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3(7): 972~980.

조성연, 2003, "여성한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자녀양육방법", 「한국생활과학회지」, 12(5): 579~593.

지은선, 2002, "학령기 정상가정자녀와 이혼가정자녀의 건강상태와 학교생활적응정도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연실, 2005, "한국에서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과 서비스의 현황과 방향",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Vol. 20.

Amato, P. R., and Patridge, S., 1987, "Widows and divorces with dependent children: Material, personal, family and social well-being", *Family Relations*, 36: 316~320.

Bassuk, E. L., Buckner, J. C., Perloff, J. N., and Bassuk, S. S., 1998, "Prevalence of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disorders among homeless and low-income housed moth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5: 1562~1564.

Beck, C.,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Blazer, D. and Burchett, B., 1991, "The association of age and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An epidemiologic exploration", *Journal of Gerontology*, 64(6): 210~215.

Brown, G., Bhrolchain, M., and Harris, T., 1975, "Social class and psychiatric disturbance among women in an urban population", *Sociology*, 9: 225~254.

Brown, G. H. and Moran, P. M., 1997, "Single mothers, poverty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Medicine*, 27.

Bruce., M. L., Takeuchi, D. T., and Leaf, P. J., 1991,

"Poverty and psychiatric statu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8: 470~474.

Burden, D. S, 1986, "Single parents and the work setting: The impact of multiple job and homelife responsibilities", *Family Relations*, 35(1): 37~43.

Caplan, G., 1982, "The Family as a Support System", In McCubbin, H. I., Cauble, A. E., and Patterson, J. M.(Ed.), *Family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200~220, Illinois: Thomas.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iatric Medicine*, 38(5): 300~314.

Compas, B. E. and Williams, R. A., 1990, "Stress, coping, adjustment in mothers and young adolescents in single and two-parent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Aug, 18(4): 525~545.

DeGarmo, D. S. and Kiston, G. C., 1996, "Identity relevance and disruption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distress for widowed and divorce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983~997,

Dohrenwend, B. S., 1973, "Social status and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8: 225~235.

Dytell, R. S. and Schwartzberg, N. S., 1986, *Work and family stress and strain outcomes among males and female teachers*, Paper presented at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vention, New York.

Ennis, N., Hobfoll, S. E., and Schroder, K. E., 2000, "Money doesn't talk, it swears: How economic stress and resistance resources impact inner-city women's depressive mood",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 149~173.

Fine, A, M., Donnelly, W. B., and Voydanoff, P., 1986, "Adjustment and satisfaction of parents: A Comparison of intact, single-parent and step-parent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7(3): 391~404.

George, L. K., Larson, D. B., Koenig, H. G., and McCullough M. E., 2000, "Spirituality and health: What we know, What we need to know",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102~116.

Grych, J. H., and Fincham, F. D., 1992, "Interventions for Children of Divorce: Toward Greater Integration of Research and Ac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1(3): 434~454.

Holloway, S. and Machida, S., 1991, "Coping with family transitions: Winners, losers and survivors", *Child Development*, 60: 1~14.

Klebanov, P., Brooks-Gunn, J., and Dincan, G., 1994, "Does neighborhood and family poverty affect mothers' parenting, mental health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441~455.

Lazarus, R. S. and Folkman, S., 1984, "Coping and Adaptation", In Gentry, W. D.(Ed.), *The handbook of behavioral medicine*, New York: Guilford.

Marris, R. W., 1981, *Pathways to Suicide*, J.H.U.P.

McCubbin, H. I., 1979, "Integrating coping behaviors in family stress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May, 237~224.

_____, 1981,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FILE),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McCubbin, H. I. and Patterson, J., 1983, "The family stress process: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ation", In McCubbin, H. I., Sussmman, M., and Patterson, J.(Eds.), *Social Stress and the Family: Advances and Developments in Family Stress Theory and Research*, 7~37, New York: Haworth.

McCubbin, H. I., Tompson, A. I., and McCubbin, M. A., 1996, *Family Assessment: Resiliency, Coping and Adaptation Inventories for Research and Practices*, Madison. Wisconsin: University of Wisconsin Publishers.

Olson, D. H., Portner, J., and Lavee. Y., 1985, *FACES-Ⅲ*,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Olson, D. H., Russel, C. S., and Sprec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Ⅳ,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Paykel, E. S., 1969, "Life events and Depression, An Gen", *Psychiatry*, 21: 753~760.

Pett, M. A., Vaughan Cole B., and Wampold, B. E., 1994, "Maternal employment and perceived stress: Their impact on children's adjustment and mother-child interaction in young divorced and married families", *Family Relations*, 43(2): 151~158.

Schwartzberg, N. S., and Dytell, R. S., 1988, "Family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In Goldsmith, E.(Ed.), *Work and Family: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Thoits, P. A., 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145~159.

원 고 접 수 일 : 2009년 10월 5일
1차심사완료일 : 2009년 12월 14일
2차심사완료일 : 2009년 12월 28일
최종원고채택일 : 2010년 1월 28일